

# **출장보고서**

**(출장지: 일본 고베시)**

2023. 9.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서울시 소재 시티넷 회원 대상 도시재난관리 분야 역량강화 워크숍
- 일시 : '23. 9. 4(월) ~ 9. 6(수) (2박 3일)
- 장소 : 일본 고베 일대
- 참가인원 : 지자체 및 기관 내 재난안전분야 담당자 4명, 시티넷 사무국 3명  
시티넷 플러스아트센터 2명, 시티넷 요코하마 사무소 1명
- 서울시 참여기관: 도봉구, 종로구, 서울연구원, 서울기술연구원

## □ 사업목적

- 재난관리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일본의 회원도시 및 관계기관들과 서울 소재 시티넷 회원 간 우수정책 교류 기회 마련
-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, 재해 등의 발생 빈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회원도시 실무자급 공무원 및 담당자들의 재난대응역량강화 모색
-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 및 담당자들이 지역사회에 맞는 재난대응 및 회복력 증대를 위한 장기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 마련

## □ 주요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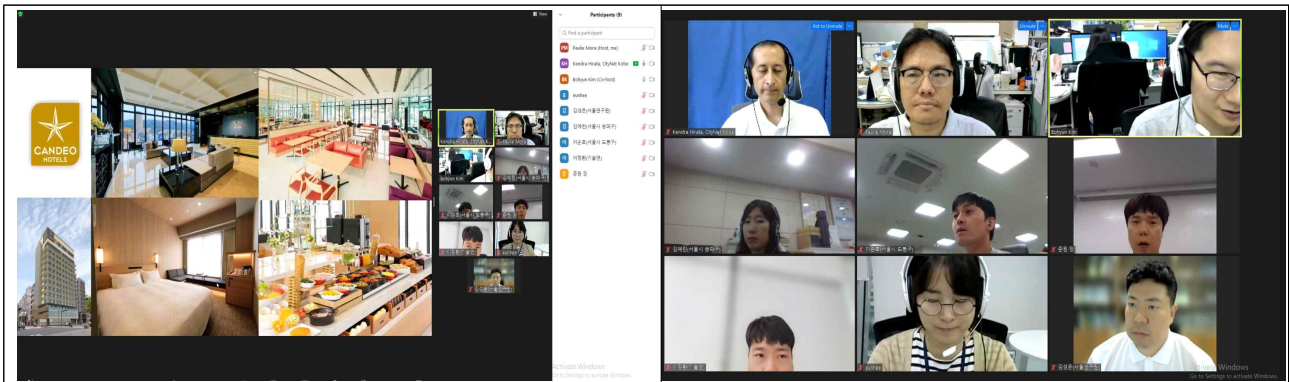
일 자	주 요 일 정
9.4 (월)	8:00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집결
	9:00 서울 출발(KE 2117)
	10:45 오사카 간사이공항 도착
	11:00 입국심사 후 오사카 → 고베 이동(전세차량 이용)
	13:00 호텔 도착 및 체크인 · 숙소: Candeo Hotels Kobe Tor Road
	13:30 점심식사
	15:30 (제1세션) 워크숍 오리엔테이션 · Higashi yuenchi Park에서 진행
	17:00 호텔 체크인 및 자유시간
9.5	9:30 아침식사 후 호텔 출발(도보 이동)

(화)	10:00	<b>(제2세션) 고베 시청 위기관리사무소 방문</b>
	11:30	점심식사
	13:00	호텔 출발(전세차량 이용)
	14:30	<b>(제3세션) 사카이시 종합방재센터 방문</b>
	16:00	사카이 시 → 고베 이동(전세차량 이용)
	17:30	<b>고베 플러스아트센터 활동 소개</b> · 디자인 크리에이티브센터 고베(KIITO)에서 진행
	19:00	환영만찬
9.6 (수)	9:30	아침식사 후 호텔 출발(택시 이용) · 체크아웃 후 개인 수하물 위탁
	10:30	<b>(제4세션) 인간과 방재 미래센터 방문</b>
	12:00	점심식사
	13:30	<b>각 그룹별 워크숍 성과발표 및 만족도 설문조사 진행</b> · 디자인 크리에이티브센터 고베(KIITO)에서 진행
	15:00	고베 → 오사카 이동(전세차량 이용) · 호텔에서 개인수하물 픽업 후 이동
	16:30	오사카 간사이공항 도착
	18:25	오사카 출발(KE 726)
	20:15	<b>인천공항 도착</b>

## □ 세부내용

### ○ 출발전 사전 오리엔테이션

- 일시/장소: 8.30(수) 15:00-16:00 / 온라인
- 참석자: (참가자) 김성은, 이순호, 이정환, 장준원  
(시티넷 사무국) 김보현, 이은희, Jaime Paulo Mora  
(시티넷 플러스아트센터) Kendra Hirata
- 주요내용
  - 워크숍 전체일정 및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안내
  - 참가자 유의사항 전달 및 질의응답 진행
- 사진



### ○ 제1세션: 워크숍 오리엔테이션

- 일시/장소: 9.4(월) 15:30-17:00 / 고베 Higashi yuenchi Park
- 참석자: (참가자) 김성은, 이순호, 이정환, 장준원  
(시티넷 사무국) 김보현, 이은희, Jaime Paulo Mora  
(시티넷 요코하마 프로젝트 사무소) Akiko Yamakoshi  
(시티넷 플러스아트센터) Kendra Hirata, Cherry Wang
- 주요내용
  - 참가자 자기소개 진행
  - 고베시 소개 및 2025년까지의 7대 비전 설명
  - 질의응답 진행
- 세부내용 및 사진

- 고베시는 과거 대지진으로 인해 부정적인 대외 이미지가 있는 만큼, 이를 탈피하고 매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 하고자 7가지 비전을 수립하였음
-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디자인에 많은 투자를 하고, 아동과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자 노력중임
- 물론 대지진의 경험을 교훈 삼아 재난관리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음. 가령 대지진 이후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,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보강공사를 할 것이 요구됨
- 대지진과 같은 대형 재난시에는 일본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하지만, 일반적인 지진의 경우 일정 강도 이상이 되면 해당 지역과 주변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해서 대응해야 하며, 학교들이 주로 대피소 역할을 하게 됨
- 고베 시민들 역시 시청의 재난대응능력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없지는 않으나, 재난이 잦은 지역 특성상 재난대비에 대한 관심과 민감도가 큰 편임
- 서울 또한 재난 시 대피소 위치, 홍수 취약지역 등을 앱으로 안내하는 등 일련의 시스템은 잘 갖추고 있으나,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임. 아무래도 대형 재난이 일본 만큼은 흔치 않은 한국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



○ 제2세션: 고베 시청 위기관리사무소 방문

- 일시/장소: 9.5(화) 10:00-11:00 / 고베 시청

- 참석자: (참가자) 김성은, 이순호, 이정환, 장준원

(시티넷 사무국) 김보현, 이은희, Jaime Paulo Mora

(시티넷 요코하마 프로젝트 사무소) Akiko Yamakoshi

(시티넷 플러스아트센터) Kendra Hirata, Cherry Wang

(고베시청) 위기관리사무소 관계자 4명

## - 주요내용

- 고베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사례 소개
- 위기관리사무소 조직구성 안내
- 고베시의 재난대응방식 소개 및 질의응답 진행

## - 세부내용 및 사진

- 지진 발생시에는 문자, TV, 라디오, 인터넷 매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초등학교 등 지정대피소로 이동하도록 안내함
- 홍수 대응을 위해 하천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,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천 주위에 CCTV를 설치하여 범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
- 고베시는 과거 대지진의 영향으로 시민들의 재난대응의식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인데, 대형 재난 발생시에는 정부에서 완벽히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음
- 따라서 민간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이 이뤄지는데, 각 동네별로 조성된 반상회 등 자치조직이 중심이 되어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, 긴급상황 시 사용할 각종 물품 등을 비축해 두고 있음
- 다만 대지진 후 태어난 세대가 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형 재난을 경험하지 않은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에도 신경 쓰고 있음
- 각급 학교에서 전용 교과서를 활용해 재난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, 이 과정에서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적극적임
- 서울 또한 재난대응 관련 제도와 시스템은 잘 마련되어 있지만, 한국인들의 경우 대형 재난 경험이 많지는 않다 보니 방재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점이 문제임. 또한 환경파괴나 부동산 이슈 등도 재난대응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함



○ 제3세션: 사카이시 종합방재센터 방문

- 일시/장소: 9.5(화) 14:30-16:00 / 사카이시

- 참석자: (참가자) 김성은, 이순호, 이정환, 장준원

(시티넷 사무국) 김보현, 이은희, Jaime Paulo Mora

(시티넷 요코하마 프로젝트 사무소) Akiko Yamakoshi

(시티넷 플러스아트센터) Kendra Hirata, Cherry Wan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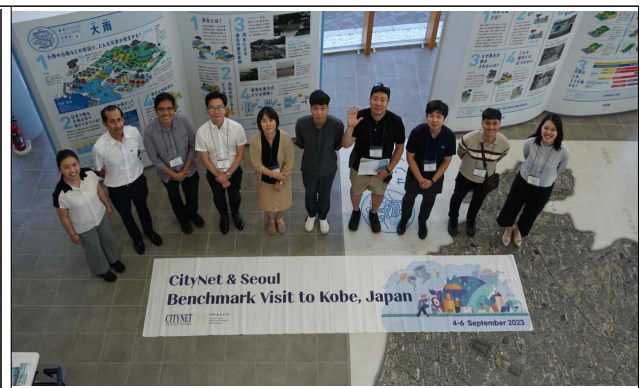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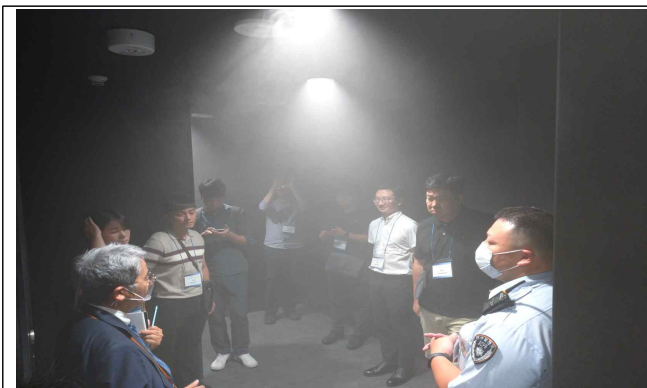
- 주요내용

· 센터 소개 및 시설 안내

· 화재진압 및 대피훈련시설 체험

· 지진체험시설 견학

- 사진



○ 고베 플러스아트센터 활동 소개

- 일시/장소: 9.5(화) 17:30-18:30 / 디자인크리에이티브센터 고베(KIITO)

- 참석자: (참가자) 김성은, 이순호, 이정환, 장준원

(시티넷 사무국) 김보현, 이은희, Jaime Paulo Mora

(시티넷 플러스아트센터) Hirokazu Nagata, Kendra Hirata,

Cherry Wang

- 주요내용

· 플러스아트센터 소개

· 일본 국내 및 네팔 등 아시아 내 타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난대응교육 관련 프로젝트 소개

- 사진



○ 인간과 방재 미래센터 방문

- 일시/장소: 9.6(수) 10:30-12:00 / 고베시

- 참석자: (참가자) 김성은, 이순호, 이정환, 장준원

(시티넷 사무국) 김보현, 이은희, Jaime Paulo Mor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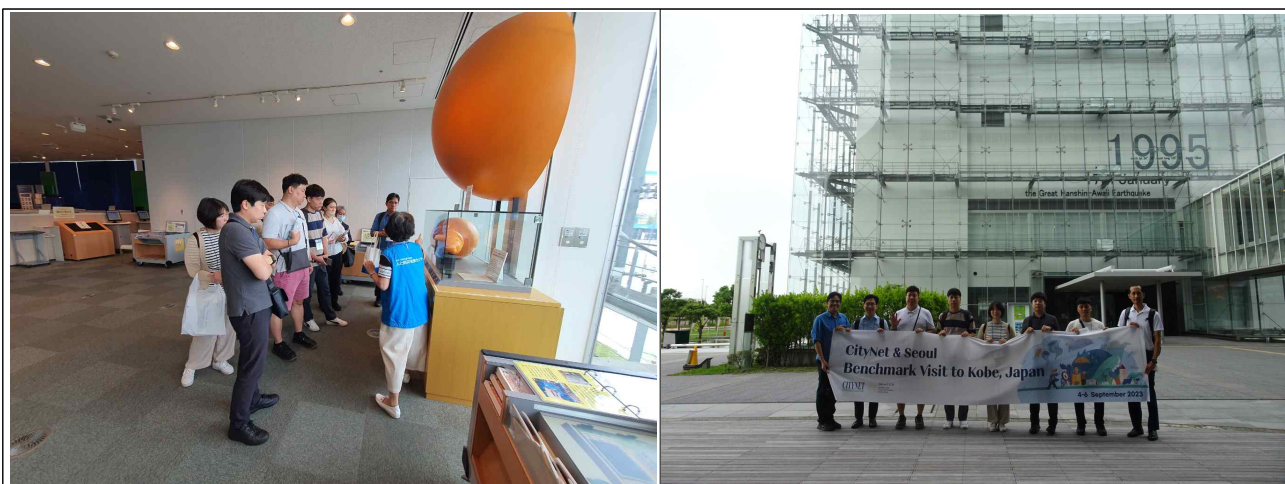
(시티넷 플러스아트센터) Kendra Hirata, Cherry Wang

- 주요내용

· 고베 대지진 관련 각종 영상물 관람

· 고베 대지진 관련 전시관 및 대중 교육시설 견학

- 사진





○ 워크숍 성과발표 및 마무리 세션

- 일시/장소: 9.6(수) 13:30-14:30 / 디자인크리에이티브센터 고베(KIITO)
- 참석자: (참가자) 김성은, 이순호, 이정환, 장준원  
(시티넷 사무국) 김보현, 이은희, Jaime Paulo Mora  
(시티넷 플러스아트센터) Kendra Hirata, Cherry Wang
- 주요내용
  - 그룹별 워크숍 성과발표: 본 워크숍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를 위한 재난 안전대응 관련 프로젝트 혹은 아이디어 제안
  - 참가자 만족도 설문조사 및 수료증 수여식 진행
- 발표내용 및 사진

그룹1: 김성은, 장준원

- 이번 워크숍을 거치며 한일 시민 간 재난대응에 대한 민감도와 관심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느꼈음. 아무래도 대형 재난을 체험할 수 있는 빈도가 다르기 때문일 것임
- 서울시에서도 이미 우수한 시스템 및 체험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임
- 따라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재난체험시설을 설립하여 오사카를 방문하는 우리 여행객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
- 이곳에서 재난관련 각종 영상, 체험시설을 운영하고, 또한 플러스아트센터에서 진행하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음
- 체험시설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에게는 오사카 내 관광지에 대한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고,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시간 부여, 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
- 이렇게 일본 내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서울시 내에서 하는 것보다 비용 대비 기대효과가 클 것이며, 시민들의 자율방재의식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

그룹2: 이순호, 이정환

- 앞 그룹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워크숍을 통해 크게 와닿았던 부분은 한일 양국 시민의 재난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임
- 대형 재난을 자주 겪지 않는 한 아무래도 대중인식을 단시간안에 끌어올리는 쉽지 않음

- 따라서 민방위 훈련과 같이 재난대응 관련해서도 전국적인 훈련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시민들의 관심도를 조금씩 높일 수 있음
- 또한 전입신고 시 해당 지역의 재난지도를 배포하거나 둘레길과 접목하여 재난체험 프로그램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시민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

